

사무엘상 14. 사울 왕의 실패와 하나님의 책망 (삼상 13 장 1-23 절)

들어가기

13 장은 사울 왕이 블레셋의 침략에 대항하여 싸운 초기 전쟁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도 주변 열국처럼 왕과 군대를 가졌으니, 나름 크고 강대한 나라, 안전하고 평안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란 큰 기대를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우연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공격하게 되면서, 블레셋의 대군이 이스라엘을 쳐들어 오는 예기치 못한 위기의 상황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새 두려움에 떨며 흩어지기 시작했고, 사울 왕은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기 맘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울 왕은 하나님의 강한 책망을 들어야 했고,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선택하며 자신만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1. 사울이 왕이 되어 한 첫 번째 사업은 상비군을 모집하는 것이었습니다. (1-2 절)

■ 참고 :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 세’ 라는 기록에 대한 Argument ! (1 절)

- ① 히브리어 원문 ‘마소라’에는 ‘40’ 세라는 숫자가 없고, 단지 ‘한 살 난 아이’ 라 기록!
- ② 따라서 이 본문에 대한 다양한 번역의 차이들이 존재..
 - Targum 역 = ‘사울이 왕이 될 때에 한 살 난 아이 같았더라’
 - kJV, Living Bible = ‘사울이 한해 동안 다스렸다’
 - NIV. 새번역, = ‘사울이 왕이 될 때에 30 세였다’
 - CEV = ‘Saul was a young man when he became king,..’
 - 다른 성경들 = ex. 헬라어 70 인역은 아예 이 구절을 생략..
- ③ 개인적 = Targum 과 CEV 를 쫓아 사울의 초기 통치가 매우 미숙했다는 뜻으로 생각.

1) 사울 왕의 상비군은 총 3,000 명이었습니다.

- ✧ 사울 = 2,000 명 -> 믹마스 와 뵤엘 산에 있게 함
- ✧ 요나단 = 1,000 명 ->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함
- ✧ 그리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돌려 보냄 (2 절 마지막..)

2) 이렇게 군대까지 갖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정국가로써 큰 기대를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2. 요나단은 계바에 있는 블레셋 수비대를 공격하였습니다. (3-4 절)

1) 그럼 왜 요나단 블레셋을 공격했을까? 그것도 수비대를?

- ✧ 이 일로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미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사울은 블레셋을 대항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갈로 모이게 하였습니다.

3. 길갈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의 대군 앞에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5-7 절)

1) 이스라엘을 침략한 블레셋 군대..

- ✧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알과 같이 많았음!
- ✧ 그만큼 당시 블레셋이 요나단의 공격에 분노했다는 사실을 발견..

2)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 ✧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음..
- ✧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감..
- ✧ 사울의 군대는 사울과 함께 두려워 떨었음..

■ 주목: 좀 전까지 자신만만히 사울을 따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움에 떨며 흩어진 이유는?

- ✧ 블레셋의 대군을 직접 눈으로 보고 두려움에 떨었다는 사실!

바다 위를 걷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끝까지 주목해 보지 않고, 잠시 파도를 보았을 때, 겁을 먹고 두려움에 물속으로 빠져들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마 14:30).

곧 문제는 블레셋 군대의 숫자가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나게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강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4. 사울 왕은 스스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였습니다. (8-12 절)

1) 사울은 7일 동안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 ✧ 7일은 사무엘이 정한 기간이었습니다.
- ✧ 곧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일을 거의 다 기다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조금 더 참지 못하고 스스로 번제를 드린 이유는?

- ✧ 11 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므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① 곧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 블레셋 진영의 군대를 보고..

- ✧ 12 절, “...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② 원어적 표현 =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대하지 못하였다’ 는 뜻..

-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사용하실 것이란 믿음이 없었다는 자기 고백..

3) 이렇게 사울은 사무엘에게 자신의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호소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시키려 하였습니다.

■ **상황 윤리에 따른 자기 행동의 합리화를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런 상황 윤리에 따른 우리의 불순종을 합리화 시킬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선 그 어떤 상황 윤리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성도는 분명히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일 것입니다.

■ **성경은 분명하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 삼상 15 장 22 절,

“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5.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사울 왕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엄한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13-15 절)**

1) **두 가지 책망..**

① 망령되이 행동했다!

- 원어적 의미는 ‘어리석게 행동하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행하다’는 뜻..

②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 (사울이 왕으로 선출될 때 한 선서를 기억해 보라..).

2) **그에 따른 두 가지 결과**

①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

②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으셨다!

✚ **생각하기 1. 사울 왕이 드린 제사는 과연 누구를 위한 제사인가?**

사울 왕의 제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구하기 위한 제사라기 보다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제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한 예배가 된다면,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3)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의 말씀을 전한 사무엘은 사울을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6. 사울 왕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 군대를 정비하였습니다. (16-23 절)

1) 사울을 따르는 이스라엘의 군대는 600 명뿐이었습니다.

2) 블레셋은 3 대의 노략부대를 뽑아 이스라엘 각 지역으로 출병시켰습니다.

3) 이때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무기 조차 없었습니다.

- 그 이유는 당시 이스라엘에는 철공이 없었기 때문!

✧ 19 절, “그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음이라”

✧ 22 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사울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얼마나 미약하기 짝이 없고, 무기력할 수 밖에 없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 **생각하기 2.** 그럼 11 장의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이스라엘은 무기가 있었을까?

당연히 그때도 마땅한 무기는 없었을 것!

곧 이스라엘의 승리는 세상적인 원칙과 계산에서가 아닌, 다른 말로는 무기의 유무가 아닌 항상 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른 믿음에 근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이스라엘의 승패는 언제나 하나님께 달려 있었음을 다시금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성도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단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출발되는 방법들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항상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 **생각하기 3.**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